

# 여성의 외모가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 은행근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

## The Effects of Physical Appearance of Business Women on their Career

- Focused on the Women workers at Commercial Banks in Korea -

공주영상대학 헤어디자인과

겸임교수 박수향\*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해주

Dept of Hair Design Kongju Communication Arts College

adjunct professor : Soo Hyang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Hye Joo Lee

### Abstract

With the women's education level higher and gender equality more promoted, women's opportunity of taking part in business is increasing. Entering the emotional age which counts self-image as being important, there is a view that woman's appearance has a direct relation to their social life.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hypothesis and important factors for women workers at banks for their successful career, that is, to verify the effects of women's appearances on their social life, furthermore, to help female applicants for a bank and the bank clerks have a desirable social life. The subjects were 200 male and 100 female bank clerks and the research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52 percent of male subjects responded that the factors of "sociability" and "character and good manners" are the most important in social life, while 47 percent of female subjects answered the factor of "ability" is so. Second, 61.5 percent of male and 84 percent of female respondents answered that woman's appearance has a potent influence on their social life. Third, 76 percent of male and 90.9 percent of female respondents answered that when the companies employ woman workers, they take woman's appearance into consideration. It shows even at job interviews that good-looking applicants are in a better position, for bankers must consult with many customers and so their neat and tidy appearance such as their natural make-up and decent hair style (short-hair style) is one of significant factors to perform their jobs. Therefore, appearance managements are primary for women bankers to work at their workplace.

Key Words : appearance managements, social life, natural make-up

## I. 서론

### 1. 연구배경

21세기에 와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감각적이고 정서적 매력을 추구하고 미적 성질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혜주·이순녀 2007). 심상민(2002)은 무형의 미적

요소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뷰티산업(bauty industry)을 새로운 시장을 형성, 성장시키는 동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최근 기업경쟁력 원천 또한 지식과 기술에 더하여 감성능력으로의 변화를 뜻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인에게 신체는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들 중 하나이고 자산으로 가꾸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신체모습 자체가 사회적인 차이기호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현상은 신체의 아름다움과 건

\* Corresponding author: Soo Hyang, Park  
Tel: 011-9049-1715, Fax: 041) 850-9051  
E-mail: hyang1715@hanmail.net

강을 유지하고 획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능력의 하나가 되었다(보드리야르, 1991).

또한 하나은행장은“이제는 감성산업시대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크며 여성이 곧 기회이다”라고 강조하였다(매일경제 2008).

사람들의 외모 가꾸기는 자신들이 감지하는 사회상과 직결되며 자발성과 다면성을 띤 현상이다. 일찍이 보드리야르(1991)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소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바로 신체이며 소비사회에서 신체는 의도적으로 투자되며 동시에 물신숭배된다고 언급하였다. 현대 사회는 이미지의 사고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 이미지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조건을 향상시키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김민정, 2005)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이 증가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외모 가꾸기는 과거의 주부로서의 아줌마라는 이미지에서 탈출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필수적 수단이 된 것이다.

이렇듯 이미지를 중시하는 감성적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미용산업과 성형외과가 번성하고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산업 시장이 18조원의 규모(심상민, 2002)가 되었으며 뷰티산업이라는 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태평양이 실시한 조사(2005)에 따르면 외모와 사회생활을 연관 짓는 응답이 많았는데 '외모와 취업을 위한 면접결과가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94%로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다'라는 응답이 56%'나는 상대방을 평가할 때 외모의 영향을 받는다'가 75%로 나타났다. 외모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85%나 된 것을 보면 외모가 인간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외모가 여성의 사회적 성공이나 바람직한 결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면 '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며 이를 흔히 '외모의 권력화'라고도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듯이 최근 신체의 미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대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으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다(성영신, 1999). 다시 말하면, 외모 가꾸기란 여성들이 부르디외(1996)가 말한 '육체자본'으로 소위 '상징적 자본'을 획득하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외모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개선하고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여성은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매우 향상되었고 고용의 기회 또한 늘어나 여

성의 취업률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특히 직장 가운데 은행은 그동안 여성들의 선택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 때문에 은행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은행에서 금융산업과 상품, 규제의 벽이 사라지면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여성의 '감성'은 장점에 그치지 않고 강점이 될 수 있다(매일경제, 2008)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의 외모와 직장생활과의 관련된 본 연구는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 2. 연구목적

따라서 본 논문은 은행근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의 외모가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뷰티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은행에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시키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은행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직장생활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와 여성의 외모가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필요로 하는 질문을 다르게 구성해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구체적인 제안을 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크게 관련 논문이나 전문잡지 등 문헌을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외모의 개념

#### 1) 외모의 정의

외모란 영어의 "appearance", "external feature"에 해당하는 말로서, 사전적 의미는 겉에 나타난 모습이나 용모, 겉모습, 겉모양(동아새국어사전, 1996)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는 신체적 특성과 외모장식으로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외모 장식은 화장, 헤어스타일, 의복, 액세

서리 등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화장, 패션, 성형, 다이어트, 체형조절, 피부 관리 등의 방식으로 외모를 가꾼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누드는 15세부터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때부터 신체의 비율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현대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오영진, 2005).

보드리야르(1995)에 의하면 신체는 더 이상 노동으로 혹사되는 존재가 아니며 휴식이나 아름다움을 주어야 하는 배려의 대상인 것이다. 또한 외모가 연애, 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인다. 여기서 외모 지상주의(루키즘; lookism)가 대두되는데 이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고나 행동을 일컫는 용어이다(제일기획, 2002).

외모 가꾸기는 결국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여성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끊임없이 소모하게 된다. 화장, 옷, 장신구 같은 고전적 방법과 기계사용, 성형수술, 약물사용 같은 첨단적인 방법들은 현대적 상업주의와 대중매체의 영향력 때문에 보다 세분화되고 있다(고석주·정진경, 1992).

## 2) 여성의 신체변화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젊음 건강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다. 신체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 및 분자나 원소 등이 인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그 구성요소를 정략적으로 밝히거나 그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신체구성은 나이, 성, 식이요법 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신체구성은 체지방과 제지방으로 구성되며 이중에서도 제지방은 근육, 뼈, 기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활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권영경, 1999).

일반적으로 대부분 신체부위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성장의 정체가 빠르며 신체 각 부위의 비율이 불균형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체형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의 피하지방의 침착은 연령과 함께 증가되는데 사춘기 이후의 여성은 체간이 사지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증가한다(최정욱, 2000).

연령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적극관리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히려 미혼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적극관리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김민정, 2005). 체형은 25~29세를 기준으로 30대, 40대 이후를 비교하였는데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이와 너비 항목은 감소

하는데 비해 둘레항목은 증가하는 경향이고 특히 허리둘레와 유장의 증가가 가장 현저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다(최정욱, 2000). 그리고 20대 전반 여성은 중·장년 여성에 비하여 상반신 비만인자는 작고 허리선을 중심으로 한 윗부분이 짧으며 어깨가 넓고 처진 형태를 가진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슴둘레 치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희춘, 2001).

비만이란(obesity) 체내 지방세포크기의 비대나 세포수의 증가에 의해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일컫으며 단순한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대사 장애를 동반하는 증상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김선희, 1991). 더구나 비만은 만성 성인병의 유병율을 증가시키고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키며 강한 열등감, 신체상의 손상, 자아개념의 악화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불안, 우울증의 정신질환과 관계되어있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bray.G A 1987). 이를 용모손상(disfiguremen), 불편감(discomfort), 비능률(disabilty), 질병(disease).그리고 죽음(death)등 소위 '5D'현상이라고 한다(Lars V. S. ,1992).

## 2. 사회생활과 외모의 가치

### 1) 외모의 문화적 가치

오늘날 외모는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이다. "얼짱" "몸짱"등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어느새 일상 속에서 자주 듣는 말이 되었다. 성형수술이 보편화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뉴스거리도 아니며,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 이른바 "외모지상주의(Lookism)"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흔히 하는 말로 "외모도 능력..."이라는 것이다.

(<http://www.reportshop.co.kr/100>)

그런데, 우리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이 젊고 날씬하며 서구화된 신체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사실이다. 여성외모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번졌다. 이상적인 외모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달될 뿐 아니라 좋은 신체적 외모에 행복과 성공이 양식화된 이미지가 융합되어 마른 신체라는 문화적 이상이 강화되고 있다(성영신, 1997).

특히 외모의 정형화된 미적 기준에 자신을 적용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욕구에 의해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이 대중화되었으며, 여성관련 연구 분야도 여성외모 가꾸기와 다이어트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현주, 2001).

## 2) 외모의 사회적 가치

Wolf(1991)는 여성의 외모 가꾸기는 산업화와 더불어 가족과 여성의 위상이 변화한데서 기인하며 이런 현대적 의미의 외모 가꾸기를 '미의 신화(the beauty myth)'라고 하였다.

Cash(1987)은 신체이미지가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는 불만족스러운 신체부위나 체형을 가리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동기화시키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사회적인 자기 확신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성에게 상징적 자본이란 얼굴과 몸이며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외모에서 찾게 된다.

부르디외(1996)는 계층이 높을수록 미모의 유용성을 훨씬 많이 자각하고 있으며 신체적 우수성에 대한 지배적인 이상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개선에 상당한 투자(시간과 절제)를 할 뿐 아니라 성형수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용상의 적극적인 조치에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비슷한 능력을 가졌을 경우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향이 많다(Feingold, 1992)는 것이다. 최근 한 광고기획사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우는 80% 정도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응답했다(김민정, 2005) 또 '피부와 몸매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을 짐작된다'에 응답자의 70%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멋이 아니라 필수'라는 응답이 78%일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있다(제일기획, 2002).

종합광고사에서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파란 통신 라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외모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피부나 몸매를 통해 생활수준도 짐작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1,264명의 취업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형외과의 인터넷 리크루트 회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98%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뽑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584명 중 94%가 채용 시 "외모를 고려한다."고 밝혔다(청소년 교육개론 자료).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형수술을 경험했고, 2005년 성형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환자 100명 중 남성이 35%나 육박했다. 이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 입태로서 성형이 화장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경향신문, 2007). 서울의대 연구팀에 의하면 여대생 역시 1500명 중 절반이 성형수술을 했으며 앞으로 하고 싶다는 여대생은 82%, 한 번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95% 이상이 또 다른 성형수술을 원한다고 답변

했다.

제일기획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13~43세 여성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영향을 끼치고 78%는 외모 가꾸기가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답했다. (외모 가꾸기 하루 평균 53분, 거울 하루 3~8회 본다.) 남성 역시 "젊어 보이기 위한 노력이 자신감 회복과 이미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남성의 "성공"에 대한 외모 역시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두성아, 2008) 이를 대변하는 사례로는 2005년 미국 연중 계간지 "The Regional Economist" 4월호에 개재한 보고서에서 "외모가 보수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잘생긴 사람의 보수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5% 많으며, 못생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9% 적은 월급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구직자 중 4명 중 1명은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 중 73.4%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구직자 중 10명 중 2명은 취업을 위해 성형했으며 그 중 83.5%가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손봉석, 경향닷컴기자)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득권자 즉 남성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 취업에 성공하는 여성은 남성의 잣대에 의해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에서 보면 여성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회에서 불평등을 받아온 것을 알 수 있다.

(<http://www.reportshop.co.kr/99>)

"출산 후 여성의 체형변화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보면 남성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외모(체형변화)가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여성들에게 고가점수를 줄 때 "외모(체형)도 반영한다"가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남성의 사고는 여성의 외모(체형)가 직장 내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높여 주는 역할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고가점수와도 연결되고 있다. (박수향, 2004)

이에 따라 "자기관리"라는 이데올로기는 나날이 커지는 뷰티산업과 상업적 대중문화에 의해 더욱 확산 유포되고 있으며 현재 다이어트 식품 1조원, 성형수술7천억~1조원 등 이른바 뷰티산업의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http://www.reportshop.co.kr/57>)

따라서 여성이 외모 가꾸기를 일종의 성취행동으로 여기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외모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개선하고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자원이 된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방법 및 설계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의 조사도구로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거주 은행원(본점, 영업점)을 대상으로 남성 은행원 200명과 여성은행원 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300매를 수집하였다.

##### 2) 도구와 자료 수집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전문가와의 토의를 통해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크게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대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남성 대상으로는 첫째,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의견 둘째, 외모와 직장생활의 관계 셋째, 외모평가 및 선호와의 관계 넷째, 화장과 직장생활, 다섯째, 체형문제와 직장생활 등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을 대상으로는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자료는 우선 2008년 11월 15일 2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12월10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남녀 은행원을 대상으로 직접 자료를 배포하여 작성토록 한 후 수거하였다.

#### 2.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응답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은행근무 남성 대상 조사 결과

##### 1) 인구 통계학적 조사

은행근무 남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5	2.5
	30대	85	42.5
	40대	96	48.0
	50대 이상	14	7.0
학력	고졸	22	11.0
	대졸	170	85.0
	대학원이상	8	4.0
직위	행원	11	5.5
	대리	49	24.5
	차과장	110	55.0
	팀장	22	11.0
	부장이상	8	4.0
거주지	강남	53	26.5
	강북	63	31.5
	경기도	60	30.0
	기타	24	12.0
합 계		200	100.0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48.0%, 30대가 42.53%로, 20대 2.5%, 50대 7.0%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8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11.0%, 대학원 이상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서는 차과장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 24.5%, 팀장 11.0%, 행원 5.5%, 부장이상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주지는 강북이 31.5%, 경기도가 30.0%, 강남이 26.5%, 기타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사고

###### 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바람직하다'(59.0%), '매우 바람직하다'(28.0%), '그저 그렇다'(12.0%),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다	56	28.0
바람직하다	118	59.0
그저 그렇다	24	12.0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	1.0
합계	200	100.0

###### ②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바람직하다'(67.0%), '매우바람직하다'(17.0%), '그저 그렇다'(15.0%),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다	34	17.0
바람직하다	134	67.0
그저 그렇다	30	15.0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	1.0
합계	200	100.0

③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한 결과 '바람직하다'(58.5%), '매우바람직하다'(11.5%)가 전체적으로 (70.0%)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남편,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찬성하는 서지원(1997)내용과 같은 결과이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다	23	11.5
바람직하다	117	58.5
그저 그렇다	48	24.0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2	6.0
합계	200	100.0

### 3) 여성의 외모와 직장생활

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여성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에 대해 파악한 결과 사회성(성격 및 매너)(52.0%),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 남성들은 여성들의 능력 보다는 성격과 매너등의 사회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외모	10	5.0
사회성(성격 및 매너)	104	52.0
능력	46	23.0
충실도(기본적 생활습관)	40	20.0
합계	200	100.0

② 일반적으로 여성을 채용할 경우 외모(체형)에 비중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사항에 직접 참여한 남성(178명) 응답자중 여성을 채용할 경우 외모(체형)에 비중을 둔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파악한 결과 '비중을 둔다.(62.0%),'많은 비중을 둔다(4.0%)가 68.0%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외모도 중요시 본다고 생각하며 기업의 인사담당자 584명중 94%가 "외모를 고려한다"(청소년교육개발자료)와 본연구가 같은 결과이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은 비중을 둔다	8	4.0
비중을 둔다	124	62.0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	46	23.0
무응답	22	11.0
합계	200	100.0

③ 일반적으로 직장여성들에게 고가점수를 줄때 외모(체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사항에 직접 참여한 남성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직장여성들에게 고가점수를 줄 때 외모(체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반영한다(49.0%)가 반영하지 않는다'(40.0%),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외모로 인해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때 회사에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이 반영한다	8	4.0
반영한다	90	45.0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80	40.0
무응답	22	11.0
합계	200	100.0

④ 일반적으로 여성의 외모(체중증가)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61.5%가"영향을 미친다"고 답하는 것을 보면 본 내용의 이론적 고찰에서 (제일기획 두성아2008, 손봉석 경향닷컴기자) 내용과 같은 결과이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은 영향을 미친다.	16	8.0
영향을 미친다.	107	53.5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9	34.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4.0
합계	200	100.0

4) 여성 외모평가 및 선호

① 귀하께서는 여성을 판단할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은?

응답자가 여성을 판단할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에 대해 파악한 결과 성격(47.7%)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여성(47.7%)과 직장인으로서의 여성(52.0%)에 대한 견해는 같았으나 특히 직장생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외모	46	13.5
성격	163	47.7
학벌	9	2.6
기술, 능력	124	36.2
합계	342	100.0

\* 중복응답

② 여성의 외모를 볼 때 가장 관심 있는 부위는?

응답자가 여성의 외모를 볼 때 가장 관심 있는 부위에 대해 파악한 결과 얼굴전체 분위기(21.5%), 전체체형(20.5%), 헤어스타일(10.6%), 얼굴형(8.5%), 가슴(7.9%), 눈(5.6%), 다리(5.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헤어스타일	42	10.6
전체체형	142	20.5
얼굴전체 분위기	149	21.5
눈	39	5.6
입술	8	1.2
얼굴형	59	8.5
피부	26	3.8
가슴	55	7.9
허리	16	2.3
엉덩이	21	3.0
다리	35	5.1
합계	692	100.0

\* 중복응답

③ 귀하께서는 여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응답자가 여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파악한 결과 얼굴형(38.3%), 눈(37.0%), 피부(18.1%), 입(4.2%), 코(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눈	123	37.0
코	8	2.4
입	14	4.2
피부	60	18.1
얼굴형	127	38.3
합계	332	100.0

\* 중복응답

④ 귀하께서는 여성체형을 판단할 경우 어느 부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여성의 체형을 판단할 경우 어느 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가슴(34.4%), 허리(25.08%), 다리(18.95%), 엉덩이(17.49%), 팔(4.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슴	118	34.4
팔	14	4.08
다리	65	18.95
허리	86	25.08
엉덩이	60	17.49
합계	343	100.0

\* 중복응답

5) 여성의 화장과 직장생활

① 귀하께서 보실 때 직장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에 대해 파악한 결과 긴 머리이건 짧은 머리이건 웨이브 있는 머리를(49.0%)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웨이브 없는) 긴 생머리	36	18.0
(웨이브 없는) 짧은 커트머리	40	20.0
(웨이브 있는) 긴 머리	49	24.5
(웨이브 있는) 짧은 머리	49	24.5
묶은 머리	26	13.0
합계	200	100.0

② 귀하께서 보실 때 직장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화장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화장에 대해 파악한 결과 '자연스러운 화장'(92.0%)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화장은 상대에 대한 에티켓이며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	6	3.0
자연스러운 화장	184	92.0
약간 진한 화장	10	5.0
합계	200	100.0

### ③ 가장 이상적인 눈 화장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눈 화장에 대해 파악한 결과 '자연스럽게 화장한 눈'(86.0%), '화장을 하지 않는 자연의 눈'(9.0%), '약간 진하게 화장한 눈'(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화장을 하지 않은 자연의 눈	18	9.0
자연스럽게 화장한 눈	172	86.0
약간 진하게 화장한 눈	10	5.0
합계	200	100.0

### 6) 여성의 체형변화(체중증가, 체중감소)와 직장생활

#### ① 귀하께서는 여성의 어떤 체형을 선호하십니까?

응답자가 선호하는 여성의 체형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일반적 체형'(46.0%), '약간 통통한 체형'(32.0%), '약간 마른 체형'(20.0%), 기타(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일반적 체형	92	46.0
약간 마른 체형	40	20.0
약간 통통한 체형	64	32.0
기타	4	2.0
합계	200	100.0

#### ② 일반적으로 체형변화(체중증가)가 고위직 승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사항에 직접 참여한 남성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178명) 파악한 결과 "관계있다"가 56.5% 나타난 것을 보면 "살이 찌면 사회생활에 불리하다"(73%)로 나타난(김상만 1997) 보고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은 관계가 있다	2	1.0
관계있다	111	55.5
거의 관계가 없다	65	32.5
무응답	22	11.0
합계	200	100.0

### 1. 은행근무 여성 대상 조사 결과

#### 1) 인구 통계학적 조사

은행근무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67.0%, 20대가 17.0%, 40대 14.0%, 50대 이상이 2.0%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7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22.0%, 대학원 이상이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서는 대리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차과장 31.0%, 행원 26.0%, 부장이상이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주지는 강북이 38.0%, 강남 29.0%, 경기도 20.0%, 기타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17	17.0
	30대	67	67.0
	40대	14	14.0
	50대 이상	2	2.0
학력	고졸	22	22.0
	대졸	76	76.0
	대학원이상	2	2.0
직위	행원	26	26.0
	대리	42	42.0
	차과장	31	31.0
	팀장	0	0.0
	부장이상	1	1.0
	강남	29	29.0
거주지	강북	38	38.0
	경기도	20	20.0
	기타	13	13.0
	합계	100	100.0

#### 2) 여성의 외모와 직장생활

##### 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여성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점에 대해 파악한 결과 능력(47.0%)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 사실 여성 자신들은 외모 보다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외모	3	3.0
사회성(성격 및 매너)	42	42.0
능력	47	47.0
충실도(기본적 생활습관)	8	8.0
합계	100	100.0



② 일반적으로 여성을 채용할 경우 외모(체형)에 비중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여성을 채용할 경우 외모(체형)에 비중을 둔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파악한 결과 '비중을 둔다'(76.0%), '많은 비중을 둔다'(14.0%)가 90%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손봉석, 경향닷컴기자) 구직자 10명중 2명은 취업을 위해 성형을 했다고 나타난 것과 동일하며 입사 시에는 외모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은 비중을 둔다	14	14.0
비중을 둔다	76	76.0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	8	8.0
전혀 비중을 두지 않는다	2	2.0
합계	100	100.0

③ 일반적으로 직장여성들에게 고가점수를 줄때 외모(체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직장여성들에게 고가점수를 줄때 외모(체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반영한다'(55.0%), '많이 반영한다'(5.0%)로 60.0%가 반영한다고 나타난 것을 보면 (손봉석, 경향닷컴기자) 83.5%가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이 반영한다	5	5.0
반영한다	55	55.0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36	36.0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4	4.0
합계	100	100.0

④ 일반적으로 여성의 외모(체중증가)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여성의 외모(체중증가)가 직장생활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영향을 미친다'(77.0%),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4.0%), '많은 영향을 미친다'(7.0%),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은 영향을 미친다	7	7.0
영향을 미친다	77	77.0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	14.0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0
합계	100	100.0

3) 여성 외모평가 및 선호

① 귀하께서는 여성을 판단할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은?

응답자가 여성을 판단할 때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에 대해 파악한 결과 성격(46.4%), 기술, 능력(38.7%), 학벌(7.7%), 외모(7.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박수향(2004) 연구에서는 성격(20%)보다 기술·능력(55.0%)이 우선순위인 것을 보면 출산 후 여성(직장인·주부)과 은행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외모	13	7.2
성격	84	46.4
학벌	14	7.7
기술, 능력	70	38.7
합계	181	100.0

\* 중복응답

② 여성의 외모를 볼 때 가장 관심 있는 부위는?

응답자가 여성의 외모를 볼 때 가장 관심 있는 부위에 대해 파악한 결과 얼굴전체 분위기(32.0%), 전체체형(25.3%), 헤어스타일(22.8%)등으로 나타났으며 박수향(2004) 연구에서는 전체적 체형(49.5%), 얼굴전체분위기(29.0%)로 출산 후 여성(직장인·주부포함)과 은행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헤어스타일	64	22.8
전체체형	71	25.3
얼굴전체 분위기	90	32.0
눈	26	9.3
입술	2	0.7
얼굴형	5	1.8
피부	18	6.4
가슴	2	0.7
허리	0	0.0
엉덩이	0	0.0
다리	3	1.1
합계	281	100.0

\* 중복응답

③ 귀하께서는 여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응답자가 여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파악한 결과 눈(40.2%), 피부(29.3%), 얼굴형(18.3%), 코(8.5%), 입(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눈	66	40.2
코	14	8.5
입	6	3.7
피부	48	29.3
얼굴형	30	18.3
합계	164	100.0

\* 중복응답

④ 귀하께서는 여성체형을 판단할 경우 어느 부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가 여성의 체형을 판단할 경우 어느 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다리(35.9%), 허리(30.6%), 가슴(17.1%), 팔(9.4%), 엉덩이(7.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슴	29	17.1
팔	16	9.4
다리	61	35.9
허리	52	30.6
엉덩이	12	7.1
합계	170	100.0

\* 중복응답

4) 여성의 화장과 직장생활

① 귀하께서 보실 때 직장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에 대해 파악한 결과 '(웨이브 있는) 짧은 머리(33.0%), '(웨이브 없는) 짧은 커트머리(27.0%)가 60%로 나타난 것을 보면 웨이브에 관계없이 단정하고 활동성 있는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웨이브 없는) 긴 생머리	13	13.0
(웨이브 없는) 짧은 커트머리	27	27.0
(웨이브 있는) 긴 머리	12	12.0
(웨이브 있는) 짧은 머리	33	33.0
묶은 머리	15	15.0
합계	100	100.0

② 귀하께서 보실 때 직장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화장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화장

에 대해 파악한 결과 '자연스러운 화장(96.0%)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직장생활에서 여성의 화장은 필수로 본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	0	0
자연스러운 화장	96	96.0
약간 진한 화장	4	4.0
합계	100	100.0

③ 귀하께서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눈화장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직장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눈화장에 대해 파악한 결과 '자연스럽게 화장한 눈(94.0%), '화장을 하지 않은 자연의 눈(4.0%), '약간 진하게 화장한 눈(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화장을 하지 않은 자연의 눈	4	4.0
자연스럽게 화장한 눈	94	94.0
약간 진하게 화장한 눈	2	2.0
합계	100	100.0

5) 여성의 체형변화(체중증가)와 직장생활

① 귀하께서는 여성의 어떤 체형을 선호하십니까?

응답자가 선호하는 여성의 체형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일반적 체형(53.0%), '약간 마른 체형(38.0%) '약간 통통한 체형(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일반적 체형	53	53.0
약간 마른 체형	38	38.0
약간 통통한 체형	9	9.0
기타	0	0.0
합계	100	100.0

② 귀하께서는 체형변화(체중증가)가 고위직 승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형변화(체중증가)가 고위직 승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결과 '거의 관계가 없다(65.0%), '전혀 관계없다(8.05%) 합해서 73.5% 높게 나타난 것은 시각적 관점에서의 느낌이고 실제로 직접 참여한 남성들은 '관계있다(56.5%)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많은 관계가 있다	0	0
관계있다	27	27.0
거의 관계가 없다	65	65.0
전혀 관계없다	8	8.0
합계	100	100.0

### V. 결론 및 제언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21세기 이후 남녀평등의 정신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직장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인식 또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지가 중요해지는 감성적 시대를 맞이하여 신체가 물신숭배 되면서 여성의 외모가 사회생활과 직결된다는 견해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이 필요로 하는 질문을 구분해서 구성해 남성이 여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남녀 공동의 직장 생활에서 여성들은 참고하기 바라며 은행에 취업을 선호하는 여성과 현재 근무 중인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며 외모가 직장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서, 자신감 있고 바람직한 직장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논문은 여성의 외모와 직장생활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실증적 고찰을 위해 여성의 선호직장인 은행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은행원 남성 200명과 은행원 여성 10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일반적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의 경우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 바람직하다(84.4%)고 보며 또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찬성하는(서지원, 1977) 것과 본 연구가 같은 결과로 나온 것을 보아 앞으로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들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남성의 경우 사회성이(52.0%) 여성인 경우에는 능력(47.0%) 의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이현주(2001)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3) 그러나 여성을 채용할 경우 외모에 비중을 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직접 참여한 남성(66.0%)과 여성(90.0%) 모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채용시 외모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여성 외모가 고가점수에 반영되는 내용에서도 상황에 직접 참여한 남성(49.0%)과 여성(60.0%) 모두 반영된다는 것과 여성의 외모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남성(61.5%) 여성(84.0%)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은행은 많은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므로 외모로 인해 좋은 이미지를 줄 때 회사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5) 일반적으로 여성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부분에서는 성격이 남성(44.7%) 여성(46.4%) 모두 1위로 나타났으나 박수향(2004) 연구에서는 남성은 성격이(67.3%) 1위로 동일하나 여성인 경우에는 성격(20%)보다 기술·능력(55.0%)이 우선인 것을 보면 출산 후 여성(직장인·주부포함)과 은행원과는 차이를 볼 수 있다.

6) 여성외모의 관심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얼굴전체(남성21.5%, 여성 32.0%) → 전체체형(남성20.5%, 여성 25.3%)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얼굴형(8.5%) 가슴(7.9%)에 비중을 두었으나 여성의 경우 얼굴(1.8%)이나 가슴(0.7%)에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7) 여성 얼굴의 관심도에서는 남성의 경우 눈(37.0%), 얼굴형(34.5%), 피부(18.1%)순이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눈(40.2%), 피부(18.1%), 얼굴형(18.3%)순으로 나타났다.

8) 직장여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남성은 웨이브 있는 머리(49.0%)를 선호로 시각적인 관점이나 여성은 웨이브와 관계없이 짧은 머리(60.0%)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편리한 손질과 활동성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9) 체형변화(체중증가)가 고위직 승진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위의 상황에 직접 참여한 남성(56.5%)은 "관계 있다"고 답하였으며 "살이 찌면 사회생활에 불리하다"(73.0%)로 나타난 김상만(1977)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73.0%)은 "관계없다"로 나타났으나 은행의 경우 고위직 승진에는 남성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들은 체형변화(체중증가)에도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입사시에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성공적인 외모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직장생활에서도 여성의 외모가 영향을 미치며 여성대상자에게 압도적으로(84.0%)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건강, 자신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외모 가꾸기는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며 얼굴과 전체체형을 동시에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생활에 들어서면 성격과 사회성이 중요하니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관계성

에 대한 내용도 함께 연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로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므로 여성을 채용한 경우 남여(76.0%, 90.0%) 모두 “외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입사시 외모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직장생활에서 화장은 될 수 있으면 얼굴의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화장법이 중요하며 헤어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깔끔한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단정한 이미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여성의 체중증가는 직장생활에서 능력과 승진 등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들의 체중증가가 이미지 제고보다 저하를 가져온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결혼 및 출산 후에도 끊임없는 체중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론으로 볼 때 여성의 직장생활은 일생동안 지속되어야 할 과업으로 특히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지는 감성시대 개인의 외적, 심적, 사회적 관리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확충과 보다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외모가꾸기, 사회생활, 자연스런화장

## 참 고 문 헌

- 권영경(1999), 과체중 여성에 있어서 댄스스포츠가 체형 체지방 및 혈압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8.
- 고석주, 정진경(1992),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여성학회, 8, 33~70.
- 김민정(2005), 한중20대와 30대 소비자의 외모가꾸기 행태 비교 연구, 태평양 학술문화재단 총서 제 15집, 태평양 학술문화재단, 494, 496, 501.
- 김태향(2001) 비만여성을 위한 의복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향신문 (2007.02.27) 성형외과 춘계학술대회발표 31면
- 김상만 (1997) “유행되는 다양한 비만치료 방법에 대한 평가” 제7차(비만학회지)87.
- 김선희 (1991)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두성아(2008), violin80@segye.com
- 매일경제(2008.6.4) 감성산업시대의 여성역할 33면.
- 박수향 (2004) 출산후 여성의 체형변화가 사회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석사논문 34, 36.
- 보드리야르(1991).
- 부르디외(1996: 311~312).
- 성영신(1997), 소비와 광고속의 신체이미지와 에로티시즘, 성과사회, 서울: 남출판사, 191~219.
- 손봉석, 경향신문, paulsohn@khan.co.kr
- 심상민(2002), 뷰티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02.
- 오영진(2005.2), 여성의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석사논문 4.
- 이현주(2001), 여성주체구성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2.
- 이혜주, 이순녀(2007), 뷰티산업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영상 미디어스타일 디자인의 개념적 접근,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78.
- 이희춘(2001), 여성복자켓 치수체계와 소비자의 치수 만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석사 논문 14.
- 제일기획(2002.08.12),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의 심층분석, 36~38.
- 최정옥(2000), 여성복이 연령별 체형별 패턴 그레이딩편차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8~19.
- 허갑범(1990), 비만증의 병인, 한국영양학회지, 118~120.
- Bray GA(1987) Overweight is risking Tate Definition Classification Prevalence, and Risk "Ann NY Acads (499: 14-21).
- Cash, Thomas F. & Brown, Timothy A.(1990), Body Image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A review of the literature, *Behavior Modification*, 11(October), 487~521.
- Feingold, A(1992), "Good-Looking People are not What W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111, 340~341.
- Lars V S (1992), "Mortality of severely obese subjecti, *Am j Clin Nutr*55: 551-558.
- Wolf, N.(1991), *Beauty Myth : How Images of Beauty are against Women*,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290~321).
- <http://www.reportshop.co.kr/detail/100/d99276.html>
- <http://www.reportshop.co.kr/detail/99/d99295.html>
- <http://www.reportshop.co.kr/detail/57/d56729.html>
- (2009. 2. 5 접수; 2009. 3. 23 채택)